

■ 바쁘신 중에도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 벨리에 설립하셨던 실리콘이미지라는 벤처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 커다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리콘이미지가 어떤 벤처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실리콘이미지는 1995년 1월에 재미교포인 데이비드 리의 주도로 기술제공자인 저와 마케팅 전문가 등 4명의 공동창업자가 실리콘 벨리에 설립한 회사이며 반도체 제조시설은 없지만 설계, 테스트,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반도체 전문회사, 즉 Fabless Semiconductor Company로 분류되는 회사입니다. 특히 고속 입출력 회로

를 주 분야로 하며 초당 기가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CMOS회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이 회로를 이용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비디오 인터페이스를 디지털로 바꾸는 패널링크(PanelLink) 칩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디오 화면의 선명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모든 신호전달체계가 디지털로 바뀌는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인텔사를 비롯한 여러 시스템회사와 더불어 공동으로 표준화하여 현재 DVI라는 표준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이 표준에 맞는 유일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미국, 대만 등의 LCD 평판 디스플레이



鄭 德 均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교수

‘새천년형 교수’의 후학 열정

95년 미국서 벤처기업 ‘실리콘이미지’ 창업 모교에 1백만달러 기부

91년부터 서울대교수로 재직중인 정덕균(鄭德均)교수는 95년 재미교포와 손잡고 미국에서 ‘실리콘이미지’라는 벤처기업을 창업해 4년만에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그 수익금 일부인 1백만달러(약 12억원)를 서울대에 기부했다.

이 벤처기업은 기존 컴퓨터의 모니터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 해상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컴퓨터용 차세대 평판모니터를 개발해 세계적인 컴퓨터회사인 컴팩, 인텔 등에 납품하고 있다.

레이 패널 메이커들이 주 고객이며 2천만달러의 매출액을 올리는 히트상품이 됐습니다. 1999년 10월에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술고문으로 창업 참여

■ 학생지도나 연구 등 학교생활 때문

에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대학 내의 벤처기업 창업 붐이 한창인데 기업 운영과 관련해 학교생활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 나가느냐도 중요한 일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 기업운영에 참여하고 계신지요.

교수직과 벤처사업의 서로 다른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업의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기술고문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와

프로젝트 형식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대학원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논문과 연관된 연구활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연구결과를 회사로

기술 이전함으로써 제품개발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에서 만들어진 연구결과가 상업화의 길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실리콘 이미지의 공동창업자가 된 것도 개발한 기술을 사장하

기보다는 어렵더라도 실용화의 길을 찾기 위해서였고 기술정보 획득과 마케팅에서 유리한 미국의 실리콘 벨리에서 창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연구분야가 워낙 실용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활동도 실용성이 높은 분야로 집중할 생각이며 상업화가 가능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벤처기업을 통하여 실현할 생각입니다.

■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서울대 전 공학부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들을 실리콘이미지에 연구원으로 파견해 세계 최고 수준인 실리콘 밸리의 각종 시험장비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학문의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대학원학생들은 학술활동이 주 임무이지만 방학을 이용하여 미국의 신생 벤처기업에서 잠시 일을 하며 실리콘 밸리의 분위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면 연구활동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말에는 대표적인 벤처기업 성공사례로 청와대에 보고되기도 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에 꿈꾸거나 현재 벤처기업을 운영 중인 다른 벤처기업가들에게 성공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창업엔 마케팅협력 중요

지금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학내 벤처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벤처창업은 쉽지만 이를 성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술 자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오랜 기간동안 기술 추세, 시장의 방향 등에 관한 관찰이 필요하며 성공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빈틈없는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조달을 통하여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마케팅입니다. 기술력만으로 벤처창업에 뛰어들면 큰 난관을 겪게 됩니다. 현재 벤처기업을 위한 여러 가

지 제도가 완비되어 있으므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각 분야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성 있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내 벤처의 경우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마케팅이나 세일즈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공확률을 더욱 높이려면 경험많은 마케팅 전문가와 협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리콘이미지사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비결도 기존의 제품을 모델로 하여 가격으로 경쟁을 하기보다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서 기존의 어려웠던 문제를 풀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거꾸로 이를 표준화함으로써 표준에 맞는 유일한 제품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마케팅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기술이라도 마케팅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성과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처기업의 마케팅지역은 대부분 국내가 아니라 세계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사업기반을 두거나 국내에 사업기반을 두더라도 미국기준의 높은 경영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벤처기업의 성공으로 얻은 결실의 많은 부분을 모교인 서울대에 기부키로 하셔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도 야심찬 더 많은 기부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만.

미국의 예를 들면, 벤처기업에서 성공한 창업자들이 모교의 학술활동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도 성공한 여러 벤처사업가들이 사회사업을 위한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실리콘이

미지사에서 실용화에 성공한 기초기술의 개발이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반도체공동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교육동의 증축기금으로 1백만달러를 내게 되었고, 제가 모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중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후학들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①7

송해성 <본지 객원기자>

버클리대서 컴퓨터공학박사 주식폭등... 1백억대의 거부로

정덕균교수는 81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84년 서울대에서 전자공학 석사, 89년 미국 버클리대에서 전기 및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91년부터 서울대에 재직해 오고 있는 정교수는 95년 10월 미국 UC버클리 공대 유학시절 동료였던 재미교포 데이비드 리와 함께 미국 실리콘 밸리에 '실리콘이미지'라는 벤처기업을 공동 설립했다. 이 벤처기업이 기존 컴퓨터의 모니터 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 해상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컴퓨터용 차세대 평판 모니터 개발에 성공해 세계 최대 컴퓨터제조업체인 컴팩, 인텔 등에도 납품하는 등 불과 4년여만에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정교수는 이 회사의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기업 운영은 동료 리가 맡고 있다. 실리콘이미지사는 지난해 10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주식값이 폭등했고 정교수도 어림잡아 1백억원대의 거부가 됐다. 정교수는 최근 자신이 집적시스템설계센터 소장으로서 있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 거액을 기부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2년간 나누어 기부하는 조건으로 50만달러는 연구소 발전기금으로, 나머지는 인터넷 및 고속통신을 위한 핵심 메모리칩 개발 프로젝트에 쓰일 예정이다.